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을 갖춘 마스터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362 의 새로운 버전

미닛 리피터와 플라잉 투르비옹을 결합한 울트라-씬 오토매틱 칼리버

주요 특징:

- 미드나잇 블루와 폴리싱 처리된 화이트 골드가 빛어내는 대비 효과를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
- 이 타임피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6 가지 발명품을 포함한 8 개의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력

예거 르쿨트르는 마스터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362 의 탄생 10 주년을 기념하여 울트라-씬 미닛 리피터를 새롭게 재해석한 버전을 선보입니다. 5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되는 타임피스는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750/1000)와 딥 미드나잇 블루 선레이 다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적 역량과 순수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마스터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362 는 그랑 메종의 독창성과 압도적인 위치메이킹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출시 당시 투르비옹을 탑재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미닛 리피터 손목시계였으며, 지금까지도 예거 르쿨트르 컬렉션 중 가장 얇은 미닛 리피터(두께 7.8mm)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토매틱 와인딩을 탑재한 하이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라는 점에서 더욱 진귀한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566 개 부품으로 구성된 칼리버 자체는 두께가 4.7mm 에 불과합니다.

사운드와 정확성의 유산에서 탄생한 걸작

예거 르쿨트르는 마스터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362 를 제작하기 위해 차임 칼리버와 정확성의 두 가지 전문 분야에서 축적해온 탁월한 유산을 활용했습니다.



1870 년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제작한 이후 그랑 메종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알람 시계부터 극도로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구현되는 그랑 소네리와 웨스트민스터 차임에 이르기까지 200 여 개의 차임 칼리버를 개발했습니다. 매뉴팩처의 워치메이커들은 차임 메커니즘의 효율을 높이고 선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사운드를 재현함으로써 사운드 품질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정확성에 대한 탐구는 1833 년에 예거 르쿨트르를 창립한 이래 그랑 메종의 핵심 가치가 되었으며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도전 정신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소형 구성품 제작과 울트라-씬 칼리버 제작을 실현시키는 생산의 정밀함과 정확성이며, 두 번째는 헤어스프링 디자인 및 다양한 투르비옹 형태 등 조정 기관에 대한 집중 연구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타임키퍼의 정밀함과 정확성입니다.

탁월한 울트라-씬 워치메이킹의 역사는 기술적 정교함과 미학적 노하우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7 년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포켓 워치를 탄생시킨 프랑스인 에드몽 예거와 자크-데이비드 르쿨트르의 협업은 발명과 혁신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얇고 우아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 영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술적 정교함과 미학적 노하우가 빚어낸 걸작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칼리버 362 는 차임 메커니즘과 관련된 기존의 두 가지 발명품(크리스탈 공(2005 년) 및 트레뷰셰 해머(2009 년)) 및 이 타임피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6 가지 발명품을 포함한 8 가지 개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플라잉 밸런스 휠
- 플라잉 밸런스 휠을 탑재한 혁신적인 플라잉 투르비옹
- S 자형 헤어스프링
- 고정형 와인딩 스트로크를 장착한 미닛 리피터
- 미닛 리피터용 개폐식 푸시 버튼
- 무음 구간 단축 시스템을 갖춘 미닛 리피터



예거 르쿨트르는 원하는 만큼 얇은 두께에 도달하기 위해 조정 기관을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칼리버 362 에서 플라이 밸런스 휠을 장착한 새로운 형태의 플라이 투르비옹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구조적 측면에서도 밸런스 스프링을 재검토해야 했고 밸런스 휠 위에 고정되어 바라보는 이들이 전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S자형 헤어스프링을 개발한 뒤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칼리버 전체의 두께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투르비옹 케이스까지 없애 더 큰 밸런스 휠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처럼 커다란 밸런스 휠을 장착한 투르비옹 무브먼트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 진동 21,600vph 를 달성하여 시간 측정 측면에서 안정성과 정확성을 모두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이 투르비옹의 특별한 점은 탁월한 기술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브릿지와 상단 케이스가 없어 역동적인 움직임을 방해 없이 감상할 수 있다는 디자인 측면에서의 장점도 존재합니다.

칼리버 362 는 오토매틱 와인딩의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의도에 따라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이를 이해 무브먼트 상단에 장착되어 두께를 늘리는 와인딩 로터의 디자인을 전면 재구상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 컴플리케이션 손목시계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페리페럴 로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칼리버를 둘러싼 페리페럴 로터는 플래티넘 950/1000 소재로 일부 제작되어 원하는 무게를 맞추고 세라믹 볼 베어링에 장착되어 마찰은 최소화하면서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로터의 위치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혜택을 안겨줍니다. 로터가 회전을 할 때마다 다이얼 주변의 슬롯을 통해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방해 없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공과 트레뷰쎄 해머는 차임의 품질을 향상합니다. 시계 글래스에 직접 부착된 공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공명기로 바꿔 놀라운 음향 품질을 지닌 소재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해머는 기존의 미닛 리피터 구조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회수한 뒤 강력한 차임을 만들어냅니다.

워치메이커는 이와 같은 타임피스 특징을 새로운 발명품인 무음 구간 단축 시스템으로 더욱 강화합니다. 스트라이크 트레인에 통합된 시스템은 15 분 단위로 타종해야 하는 구간이 없을 때 시간과 분 사이에서 소리 없이 잠시 멈추는 무음 구간을 줄여줍니다. 기존의 미닛 리피터에서는 15 분 단위로



타종해야 하는 구간이 없을 경우 시간과 분을 알려주는 차임 사이에 무음 기간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면 무음 기간을 줄여 시간 타종을 마친 후 빠르게 분 타종이 이루어집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엔지니어들은 시계의 디자인에 주목하여 미닛 리피터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케이스 측면의 8 시 방향에 눈에 띄지 않는 잠금 해제 버튼을 그리고 10 시 방향에 개폐식 푸시 버튼을 장착했습니다. 잠금 버튼이 움직이면 푸셔가 외부로 드러나고 푸셔를 누르면 스트라이킹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푸셔는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원형 케이스 본래의 깔끔한 라인을 유지합니다. 리피터 활성화 시스템은 케이스의 방수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성능 측면에서의 장점도 제공합니다. 방수 미닛 리피터는 극히 드물며,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칼리버 362는 3bar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드나잇 블루 다이얼과 폴리싱 처리된 화이트 골드 케이스가 빚어내는 대비 효과

직경 41mm, 두께 7.8mm의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칼리버 362는 그랑 메종이 20세기 초에 공개한 울트라-씬 포켓 워치, 특히 1907년 쿠토(Couteau, 나이프) 포켓 워치의 우아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매뉴팩처는 놀라운 음향 품질을 지닌 화이트 골드를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타임피스를 새롭게 재해석한 모델에서 미드나잇 블루 선레이 다이얼은 핸드 폴리싱 처리한 베젤, 측면, 점차 얇아지는 러그와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딥 블루 컬러의 배경에 길고 슬림한 도피네 핸즈, 깔끔한 바통형 아워 마커, 화이트 도트 미닛 마커를 조합한 깔끔한 다이얼 인디케이션은 예거 르쿨트르의 유서 깊은 포켓 워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정 브릿지의 고프 드 제네브 장식과 핸드 베벨링 등 파인 워치메이킹 마감을 적용했으며, 특유의 날카로운 내부 각도는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는 장인들의 놀라운 기술적 역량과 디테일을 향한 노력을 증명해줍니다. 다이얼 측면, 스네일 마감을 섬세하게 적용한 페리페럴 로터의 일부 섹션에서도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장인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타임피스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6 가지 발명품을 포함하여 8 개의 특허 기술을 탑재한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칼리버 362 는 시계 혁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매뉴팩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증명해줍니다.

상세 정보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칼리버 362

케이스: 화이트 골드 750/1000(18K)

크기: 직경 41mm x 두께 7.8mm

칼리버: 오토매틱 칼리버 362

기능: 시, 분, 투르비옹, 미닛 리피터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딥 블루 선레이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루 악어 가죽, 작은 스케일 악어 가죽 안감

제품 번호: Q1313581

5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